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신종인플루엔자와 양계산업 민감한 언론보도 업계피해 확산

인플루엔자(Influenza)는 인류뿐만 아니라 양계업계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자리잡힌지 오래다. 특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는 2003년 12월 이후 5~6년동안 1~2년을 주기로 국내 가금업계에 큰 피해를 주면서 양계업계를 괴롭혀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인체에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시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더라도 1, 2차 발생 때 보다는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언론에 의한 과장보도가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업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과거 '팬데믹'을 연상하면서 마치 수천명의 인구가 사망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만 키웠을 뿐이었다. 하지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사태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추측했던 대 유행도 한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애매한 일부 양계인과 치킨집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사망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발표된 자료를 갖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비관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H1N1)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느낌은 마찬가지로이다. 일부에서는 대유행을 운운하고 국내에서 최소 수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를 되새김질 하는 감이 든다. 물론 전 세계 사망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노릇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에서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시키고 위축시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되자 국가재난 상황 대비책의 일환으로 각종행사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양계산업과 관련하여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9월 9일 명동에서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구구데이 행사가 취소되었는가 하면, 본회가 9월 18

일과 19일, 경북 상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09 전국양계인대회」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역적으로 큰 행사들도 줄줄히 취소되는 등 가을철에 준비된 대단위 축제들이 중단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칠레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칠면조에서 발생해 사람에게 다시 옮길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양계산업으로 불뚱이 튀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한 사태를 가지고 전염 가능성을 내 세우며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WHO는 해마다 말라리아로 10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신종인플루엔자는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단순 감기에 의한 합병증으로 치부해도 무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백신도 무리없이 준비되고 있고 우려하는 만큼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FTA 등 수입개방 등에 따른 축산(양계)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때에 급한 판단으로 경제적인 위축 등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번 사태를 풀어갔으면 한다.

종계장 방역관리 및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조정 양성계군의 실효성 있는 도태 기대

그 동안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해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계군으로 판정될 경우 도태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던 도태장려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으로 인한 실효성 감소로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현행 일부 검사시기(120일령~산란개시 전)에만 제한적으로 지급해 오던 도태장려금을 추가검사(산란개시 이후)에 따른 양성계군 도태시에도 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령별 종계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태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본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5천원으로 정해져 있는 도태장려금이 주령별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종계장 일제 모니터링 검사 추진에 따른 양성계군 검출시 도태장려금 지급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하는 등 현실성을 고려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면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푸스 방역관리를 통한 양성계군의 실효성 있는 도태로 난계대 전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의 효과적인 검사를 통한 양성계군 색출을 위해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도 일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시 혈청검사법이 교차반응에 의한 비특이 반응 유발 및 진단키트 수입 애로 등으로 방역상 혼선이 초래되어 혈청검사법에 균분리 검사법을 추가함으로써 진단의 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사에 있어서 1, 2차로 끝냈던 것을 3차 검사방법에 균분리 검사를 신설하고 1, 2차 검사결과 양성율이 30% 미만으로 나온 계군은 3차 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검사를 유도하였다. 이때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 균분리가 된 계군이 발견되면 양성계군으로 판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게 된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은 각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되는데 종계부회분과 소위원회를 통해 본회에서는 개정사항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관련 내용이 확정,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란·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 발족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한 모임체 기대

최근 계란산업발전대책연구회(이하 계란연구회)와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이하 계육연구회)가 잇따라 발족되면서 양계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이 같은 모임체는 농림수산물품부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방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과 관련하여 계란과 계육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 업계에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계란연구회는 한국양계조합 오정길 조합장이 회장을 맡게 되었고 계육연구회는 축산과학원의 서옥석 과장이 회장으로 진두지휘 하게 되었으며, 참여인원은 각각 40여명씩 구성되어 운영된다.

계란연구회는 조직을 생산분과, 유통분과, 정책분과 등 3개분과로 나누어 계란콜드체인 시스템 등 당면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등 향후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육계연구회는 사육분과, 유통분과 등 6개분과를 두고 생산이력제 등 각 현안에 맞는 대책들을 논의해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정책, 연구, 생산,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회인 만큼 양계업계의 발전적인 방안과 이정표를 제시해 갈 때 우리 양계업계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같은 배를 탄 만큼 자칫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입장만 토로하고 사공이 많다면 의견만 분분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만을 양산한 꼴이 되기 때문에, 목표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모임은 긴급회의 등을 통해 당면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예견되면서 양계업계의 핵심적이고 폭넓은 '싱크탱크'로 업계에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양계**